

'깨달음'이 있어 '깨닫지 못함'이 있다

(覺)

(不覺)



지안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설

직지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기신론에서는 깨닫지 못한 불각(不覺)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려놓는다.

“사실 그대로 진여법이 하나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마음이 일어나서 그 망념이 있게 된 것.”

다시 말하면 진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망념이 생긴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 망념이 본각을 떠나 자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마치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동서남북의 방향을 몰라 헤매고 있는 것과 같다. 이 사람이 가야 할 방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방향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 즉, 올바른 방향이라는 잣대를 마음속에 지니고 있지 않았다면, 방향을 잃어버릴 이유도 없게 된다.

이와 같이 깨닫지 못한 불각의 마음은 참된 각(覺)이 있기에 생기게 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불각이 없다면 진각(眞覺)이라 할 깨달음도 없게 된다. 중생들의 경우에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이는 올바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이 있게 되듯, 각이란 본성을 떠난 불각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반대로 참된 깨달음(眞覺)을 말하는 것은 깨닫지 못한 불각의 망념이 중생의 마음속에 있는 까닭에 이 불각과 관계를 지어 설정되는 것이다. 이것은 근본불각으로 무명의 망념이 있게 된 근거를 말한다. 마음의 순수하고 영원한 본래의 모습을 알지 못하는 근본적인 미혹을 일

삼세와 육추의 과정을 통해

중생의 생사 고통 근원 성찰

망념을 벗어나 진여를 찾아야

컬어 '무명' 또는 '근본불각'이라 하는 것이다.

이 근본불각에서 시작되는 세 가지 양상이 생겨서 깨닫지 못한 상태를 그대로 확장해 나간다. 첫째는 '무명이 업이 시작되는 상태'로 깨닫지 못한 불각에 의해 마음이 움직인다. 이를 업(業)이라 하는데 깨달음은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움직이면 괴로움이 있다. 그것은 결과가 된

인을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는 '능히 보는 상태'로 움직임에 의해 능히 보려는 주관이 세워지는 단계이다. 움직이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 주관이 세워지지 않는다. 셋째는 '경계가 나타나는 상태'로 능히 보려고 애쓰는 것에 의해서 경계가 망령되어 나타난다. 견을 여의면 경계가 없기 때문이다. 세 가지 단계의 이름은 무명업상(無明業相), 능견상(能見相), 경계상(境界相)이라 하는데 줄여서 업상(業相), 전상(轉相), 현상(現相)이라고도 말한다. 이 세 가지 단계는 망념이 일어나는 미세한 원초적인 단계라 삼세(三細)라고 한다.

삼세(三細)를 거울에 비유하여 설명하면 업상은 거울의 체(體)이고 전상은 거울의 면이 물체를 비추는 용(用), 곧 작용이며, 현상은 거울 면에 나타난 비취진 물체의 모양(相)이다.

삼세(三細)의 과정에서 마음이 동요하기 시작하여 주객의 대립이 야기되고부터 다시 점점 거칠게 일어나는 여섯 가지 단계의 양상이 뒤따라 있게 되는데 이를 육추(六)이라고 한다. 추(六)는 세(細)의 반대로 굵고 거칠다는 뜻이다. 미세한 원초적인 생각이 점점 굵어지고 거칠어 가는 과정에서 미세한 생각과 거친 생각을 구분해 나누면서 쓴 말이다.

육추의 첫째는 지상(智相)이다. 지

(智)는 분별 또는 식별을 의미한다. 이 지상부터는 마음의 동요가 커진다. 나타나는 경계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지상에서 생긴다. 둘째는 상속상(相續相)으로 지상이 분별한 것에 의해 괴로움과 즐거움을 느끼는 마음이 생겨서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는 것을 말한다.

셋째는 집취상(執取相)으로 상속상에 의해 경계에 얽혀 괴로움과 즐거움에 머무는 마음이 되어 집착을 일으키게 되는 모습이다. 싫은 것은 배격하고 좋은 것은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아집(我執)과 아욕(我欲)이 깊어져가는 상태. 넷째 계명자상(計名字相)은 집취상에서 만들어진 아집을 통해 집착의 대상에 이룬 저런 이름을 붙여 다시 이를 분별하고 계교하는 것을 말한다. 다섯 번째는 기업상(起業相) 혹은 조업상(造業相)으로 분별 계교를 통해 선악을 업을 짓는 것이다. 다음 여섯 번째가 업계고상(業繫苦相)인데 줄여 수보(受報)라 하기도 한다. 업을 지으면 그 과보가 있게 된다. 이것이 인과(因果) 법칙인데 과보를 받아서 삼계(三界) 육도(六道)에 윤회하면서 업력에 얽매어 고통을 받으며 생사를 거듭하게 된다.

이상의 삼세와 육추의 과정은 중생의 생사 고통이 있게 된 근원적인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희망이 있던 자리

눈높이라는 말이 있다. 눈높이에 따라 세상을 바라다보는 기준이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삶에 있어 모범답안이 없듯 세상을 살아가는 재미도 사람에 따라 눈높이에 따라 다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어차피 정해진 답이 없다보니 착각 아닌 착각에 머물며 씨줄 날줄로 세상을 엮어가고 있는 것이다. 밝음에 머무는 사람은 긍정적인 착각으로 빛과 어둠사이에서 끊임없이 윤회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긍정적인 착각은 힘을 키우지만 부정적인 착각은 꿈을 좇아들게 하는 것이다. 긍정과 부정의 마음의 달고 열림에 따라 빛과 어둠으로 변화를 거듭하는 것이다.

눈(眼)의 괴로에 따라 사물의 정확도가 달라지듯이 마음의 온도차에 따라 굵게도 밍게도 보일 수 있는 것이다. 착시현상 또한 사람의 욕구에서 비

웃으면 건강이 온다는 건강지킴이 운동법으로 그 돌레를 넓혀가고 있는 것이다. 불교의 보시(布施)에는 애어 보시(愛語布施)가 있는데, 부드러운 말로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말의 힘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어차피 사람에 따라 눈높이에 따라 다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어차피 정해진 답이 없다보니 착각 아닌 착각에 머물며 씨줄 날줄로 세상을 엮어가고 있는 것이다. 밝음에 머무는 사람은 긍정적인 착각으로 빛과 어둠사이에서 끊임없이 윤회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긍정적인 착각은 힘을 키우지만 부정적인 착각은 꿈을 좇아들게 하는 것이다. 긍정과 부정의 마음의 달고 열림에 따라 빛과 어둠으로 변화를 거듭하는 것이다.

내 인생에 있어 오늘의 지금이 가장 화려한 전성기이며 제일 예쁘고 제일 ভাল 사람이며 능력이자 승리가 될 수 있음을 확신하며 자신만만하게 살 일이다. 불교의 중도사상(中道思想)은 팔정도(八正道)의 수행력으로 실현되는데 바르게 봄(見)과 바르게 알(知)은 수행의 완성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다. 눈, 귀, 코, 입, 몸, 뜻이 색깔, 소리, 냄새, 맛, 느낌, 인식 작용에 의해 생각의 노예가 될 수도 있고 집착을 벗어버린 자유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세상의 중심 게으름 없는 노력으로 승리자 돼라

못될 수 있다. 같은 사물이나 어떠한 물체를 보고 순간적으로 착시현상을 일으키는데 근원적으로 그 원인을 살펴보면 평소의 바람, 마음속 목마름이 순간적 이룸으로 착시(錯視)를 불러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른 새벽길에 길거리에 놓인 어떤 물체를 매고픈 사람은 먹거리로, 돈 고른 사람은 돈다발로 착시현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로운 존재이길 희망하나 흔들림과 험덕임으로 목마름 속에서 헤매는 어둠의 자식이 되고 있는 것이다. 마음 작용에 의해, 눈 높이의 높낮이에 따라 같은 환경에서도 같은 사물을 두고도 빛과 어둠사이로 윤회를 즐기고 있는 것이다. 서양에서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내세워 '일체유심조'처럼 활용하고 있다. 생각을 모아 간접심에 이르게 되면 원하는 바램과 욕구가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논리이다.

그렇다면 세상을 살아가는 다양한 방법에 있어 마음의 밝음은 희망을, 마음의 어둠은 절망을 불러들임에 방점을 찍어 깊이 관조해 볼 일이다. 웃으면 복이 온다는 속담이 이제는

정견(正見) 하나만 설명하더라도 세상은 중심과 변두리가 정해져 있지 않는 것이다. 동·서·남·북이 정해져 있지 않듯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머무는 곳이 곧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기준으로 하여 사방, 팔방이 정해지는 것이다. 해 뜨는 방향을 동쪽이라 하고 해지는 방향을 서쪽이라고 부르고 있으나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동쪽이고 서쪽이나고 물으면 누구나 잠시 머뭇거리게 되어있다. 그러나 정답은 누구에게나 한결 같이 정해져 있다.

자신이 서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하여 해 뜨는 곳은 동(東)이요 자기를 중심으로 하여 해지는 곳이 서(西)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남(南)과 북(北)도 그럴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세상의 중심, 동·서·남·북의 중앙에 있는 것이다. 이웃사이더가 아닌 인사이더의 삶이 나에게는 장되어 있는 것이다. 나에게는 변두리와 모서리가 없는 중앙뿐인 것이다.

희망이 있던 자리에는 게으름 없는 노력으로 평화와 자유, 행복을 누리려는 승리자의 노래 소리가 수천 송이의 꽃송이로 피어나게 해야 한다.

無相의 보시는 오묘 · 수승하다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 보시의 종류

施是生天道 出世之胎胎
(시시생천도 출세지포태)
無相施為妙 平等為最勝
(무상시위묘 평등위최승)
身及物皆施 無有所惜
(신급물개시 무유소익)
一切處皆施 無有方所者
(일체처개시 무유방소자)
一切時皆施 無有不施時
(일체시개시 무유불시시)
於此四施中 心常不動
(어차사시중 심지상불동)
如是行施者 名不思議
(여시행시자 명불사의시)
若施一眾生 一切盡蒙樂
(약시일중생 일체진몽락)
若不如是施 是名為欺

(약불여시시 시명위가광)

雖名施一人 是為施一切
(수명시일인 시위시일체)

번역

보시는 하늘에 태어나는 길이며, 세속에 벗어날 태아를 싸는 막이거니와, 무상

보시는 하늘에 태어나는 길

마음 · 지혜 흔들리지 말아야

(無相)의 보시가 오묘한 것은 평등심이기에 최고로 수승합니다.

몸과 물질로 다 보시하되 인색하고 아끼지 말며, 일체의 곳에 다 보시하되 방

향과 장소를 따질 필요가 없고, 일체의 때에 다 보시하되 보시하는 때가 따로 없거니와, 이 네 가지 보시를 행하는 가운데 마음과 지혜가 늘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보시의 실천을 이룸하여 부사의(不思議)한 보시라고 하니, 만약 한 명의 중생에게 보시해도 일체가 다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만약, 이와 같은 보시가 아니라면 이것은 속이고 기만하는 것이라고 부르나니, 그럴지라도 부사의(不思議)한 보시를 한 사람에게라도 했다면, 이것은 일체에게 보시한 것이 됩니다.

해설

제바보살은 여기서 부사의(不思議)한 보시의 네 가지 종류를 알려준다. 부사의 하다는 것은 생각으로는 도저히 가능할 수 없는 공덕이 있다는 의미이다.

첫째, 무상(無相)의 보시다. 무상의 보시는 곧 평등심이다. 평등심은 차별이 없는 자비심이다.

둘째, 인색함이 없는 보시다.

셋째, 방향과 장소를 따지지 않는 보시다.

넷째, 때를 가리지 않는 보시다.

이 네 가지 보시는 오묘하고 수승한 과보를 받을 뿐 아니라, 세속의 번뇌를 벗어나는 길이라고 일렀다. 또한 하늘에 태어나는 길이라고 일렀다. 만약 이 네 가지 보시를 한 사람에게라도 했다면, 이는 곧 일체 중생에게 보시한 것과 같은 공덕이 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네 가지 보시를 행하는 가운데 마음과 지혜가 늘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라고 제바보살은 간곡히 부탁하였다.

한편, 보시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어서는 안 된다. 선한 과보는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리라. 만약,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어떤 조건으로서의 보시라면 장사꾼과 무엇이 다를 것인가. 보살이 장사꾼의 마음을 쓴다면, 보살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 못할 것은 자명하다.

출강 및 통신 2016학년도 제 25기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불교 법사 교육 신입생 모집

뛰어난 불교교육과 법사자격을 원하십니까?

“불교법사 양성 전문교육(1년제)”

◆ 25년의 법사 교육에 전통과 신뢰는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에 또 하나의 자랑과 긍지입니다.

모집과정	· 법사과정 (1년)	· 대법사과정 (2년)
	· 불학연구원과정 (5년)	· 불교석좌과정 (2년)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 후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16년 2월 25일까지 (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 (방문·우편·팩스·메일) 부산교육원 ☎ 051-466-1959 · 제주교육원 ☎ 064-751-1959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건지동, 한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 02)733-1959
720-1836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92기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서, 쇠송, 상단에불, 각단에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육,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6년 3월 14일까지

◆ 개강일시 : 2016년 3월 15일(화요일) 개강

매주 (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제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어렵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